

## 아르헨티나의 정실 자본주의와 부정부패

Oscar Oszlak Principal Researcher  
CEDES(Center for State and Society Studies)

### ■ 주요 내용

-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가 존재하며, 국민은 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.
- 아르헨티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정실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음.
- 정부의 부패는 어디에나, 그리고 항상 존재해왔고 정실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부패도 포함하고 있음. 그리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.



## 1 아르헨티나의 부패 상황

☒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가 존재하며, 국민은 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- 키르치네르<sup>1)</sup> 정부<sup>2)</sup>의 집권 이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부패 관행에 대한 규모가 폭로되기 시작함.
  - 이에 아르헨티나 국민의 관심사는 기존의 사회적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에서 “부정부패”로 옮겨가게 됨.
  - 키르치네르의 부정부패를 일컫는 ‘K Money Route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수록,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당시 집권내각의 일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이 많아졌으며, 이들은 부정부패 조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기도 함.
- 현재 재임 중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<sup>3)</sup>의 이름이 거론된 파나마페이퍼의 유출은 아르헨티나 대중들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음.
- 지난 9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장관들과 이전 내각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에 대한 소송이 745건이나 진행되었음.
  -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에 대한 소송과 청원은 298건으로 기록되었으며, 그 뒤를 이어 전 부통령과 공공사업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수로 진행되었음.
- 호세 로페즈(José López) 아르헨티나 전 공공사업부 부장관이 현금이 든 가방을 숨기려고 한 영상이 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바 있음.
  - 이 영상은 이전 정부의 공공사업부 부장관이 새벽 3시에 5백만 달러의 현금이 가득한 가방을 숨기려고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음.
  - 영상의 주인공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 영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.
  - 더불어 영상에는 돈을 세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, 그 중 한명은 아르헨티나 고위공직자와 연관된 핵심 인사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짐.
  -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20명 가까이 되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았고, 그 중 일부는 구속되었음.

1) <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2%A4%EB%A5%B4%EC%B9%98%EB%84%A4%EB%A5%B4%EC%A3%BC%EC%9D%98>

2)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부

3) 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Mauricio\\_Macri](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Mauricio_Macri)

- K money 출처에 대한 이슈는 아르헨티나의 검사, 판사, 언론인 그리고 키르치네르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이 좋아하는 이슈임.

그림 1. 호세 로페즈 전 부장관의 자금 은닉 영상



자료 : Clarin and La Nación

그림 2. 아르헨티나 고위공무원들이 부정 자금을 세고 있는 모습



자료 : Clarin and La Nación

## 2 정실 자본주의의 정점

### ▣ 아르헨티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정실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음.

- 정실자본주의란,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경제구조를 의미함.
  - 구체적으로 정부의 법적 허가, 정부보조금,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특정 기업에 대한 편애 혹은 이를 위한 조작된 계약 등을 포함함.
  - 이러한 관행은 정치적으로 마치 두목과 부하의 관계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정부와 기업의 영역과 섞이면서 발생함,
  - 정치가와 기업가들의 우정과 우호관계가 결국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, 이로 인해서 공익을 망치게 되는 것임.
- 1962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고별연설에서 “군산복합체로 일컬어지는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의도하던, 하지 않았던 간에 발생하는 공인되지 않은 영향력에 대항해서 정부를 지켜야 한다.”고 언급하였음.
  - 더불어 그는 “잘못된 권력의 행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, 이는 계속 될 것이다.”라며 “우리는 절대로 군산복합체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과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한 바 있음.
- 그러나 군산복합체는 정실 자본주의의 형태를 통해서 그저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의 한 부분에 불과함.
- 아르헨티나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행해지는 많은 계약들이 부패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조작되었고, 결국 정부 부패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긴 가짜 기업들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음.
- 2016년 The Economist에서 조사한 정실 자본주의 지수에 의하면, 아르헨티나는 전체 22개국 중 17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정실 자본주의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함.
  - 올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보도하였으며, 이와 더불어 이전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, 결국 혐의가 인정된 일부 공무원들은 구속되었음.
  - 이에 아르헨티나의 정실 자본지수는 전년도 11위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임.
  -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현재의 정실 자본주의 지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처럼 높은 순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.

- 클라우드오 캣츠가 언급했던 것처럼,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러한 자본주의 형태는 제 3세계 국가들의 왜곡된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음.
  - o 이러한 형태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, 심지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기구인 IMF에서도 보여지는 괴저(壞疽)로, 최근 전 IMF 의장 3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임.

### 3 결론

**☒ 정부의 부패는 어디에나, 그리고 항상 존재해왔고 정실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부패도 포함하고 있음. 그리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.**

-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<sup>4)</sup> 정부, 그리고 브라질의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르<sup>5)</sup>의 정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.
  - o 최근에는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사건이 일어났는데, 이 또한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국가제도가 약할수록 부패가 더 악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, The Economist는 아르헨티나를 정실 국가 중에서 가장 약한 국가제도를 가진 국가로 평가한 바 있음.
  - o 국가의 경제 구조가 폐쇄적일수록 정실 자본주의는 거짓된 산업진흥정책, 수입품 조절, 재정상의 혜택 그리고 정부보조의 신용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쥐어 짜내짐.
  - o 신자유주의와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면서, 비도덕적인 민영화, 공익산업의 감면과 공공의 예산이 사기업의 소유로 들어가고 있음.
- 정당한 개인의 이득에 대한 정치적 표현은 개방된 소통의 창구에서가 아니라 지하철 터널과 같은 어두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.
- 그리고 이러한 국가제도와 정책의 불투명함은 아르헨티나의 의회, 정당, 입법부,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.
- 아르헨티나에서 국가의 부패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부패의 본질은 국가든 사회든 가리지 않고 일어남.
- 사회 여러 영역에는 국가라는 이름하에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행위자들이 있으며,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올바른 방향성에서 이탈하게 됨.

4) [https://es.wikipedia.org/wiki/Carlos\\_Andr%C3%A9s\\_P%C3%A9rez](https://es.wikipedia.org/wiki/Carlos_Andr%C3%A9s_P%C3%A9rez)

5)

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E%98%EB%A5%B4%EB%82%9C%EB%91%90\\_%EC%BD%9C%EB%A1%9C%EB%A5%B4\\_%EC%A7%80\\_%EB%A9%9C%EB%A3%A8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E%98%EB%A5%B4%EB%82%9C%EB%91%90_%EC%BD%9C%EB%A1%9C%EB%A5%B4_%EC%A7%80_%EB%A9%9C%EB%A3%A8)

- 결국 이는 정부의 공익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며, 결론적으로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역할들을 낭비하도록 함. **EMERiCs**

**출처**

Katz, Resumen Latinoamericano, August 3, 2016; The Economist, Crony Capitalism Index; Clarin and La Nación 등